



# 유명작가들 동심의 세계 그리다

## 안도현·최인호 등 어른들도 읽는 동화 잇단 출간

안도현·최인호·김별아·박완서·이명랑, 한국문단에 내로라하는 인물인 이들의 공통점은 시나 소설 외에 '동시'와 '동화'를 쓰는 작가라는 점이다. 최근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는 단연 안도현(49) 시인이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로 알려진 안 시인은 올해 114쇄를 찍으며 86만 부 제작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연어'의 후속작 격인 '연어 이야기'(문학동네 펴냄)를 낸데 이어 최근 자신의 두번째 동시집 '남남'(비룡소 펴냄)을 출간했다. 시와 동시, 동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크로스오버 문학의 전범으로 부각하고 있는 안 시인은 이번 동시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소재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쓴 동시 40편을 실었다. 소설가 최인호(65)와 김별아(41)도 올해 초 나란히 동화책을 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작가들이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동심의 세계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준다.

암 투병 중인 최씨는 실제 아들의 이름인 '도단'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동화집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처음주니어 펴냄)를 냈다. 어린이신문에 매년 어린이날 연재했던 소설 11편을 묶은 것이다. '미살'의 작가 김별아의 동화 '네가 아니었다면'(토요북 펴냄)은 아이를 기르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했던 엄마의 속마음을 조곤조곤 털어놓는다. 김씨의 첫 창작 그림책으로 기쁨과 사랑을 가르쳐준 소중한 존재, 아이에 대한 고마움과 정이 가득 담긴 서정적인 그림책이다. 이외에도 동화쓰는 소설가로는 박완서(69)와 이명랑(37)이 있다. 10년 전 '자전거 도둑'(다림 펴냄)을 낸 바 있는 박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어린시절을 떠올리며 쓴 동화집 '나 어릴 적에'(처음주니어 펴냄)를 출간했다. 남루하고 부족한 것 천지였던 시절의 옛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행복'과 '주역'을 떠올리며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듯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재기발랄하고 솔직 담백한 입담으로 정경란 소설 '삼오식당'의 작가 이명랑은 청소년소설과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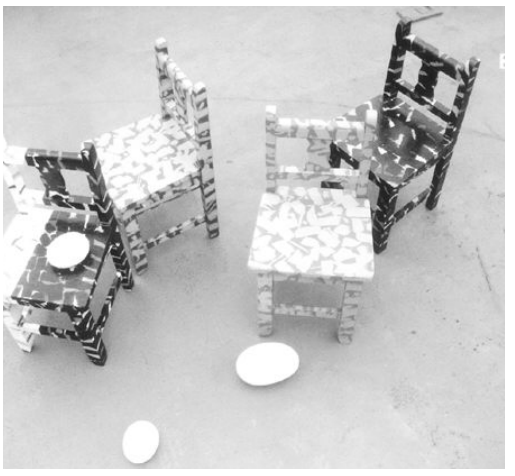
작업에도 열심이다. 이씨는 영등포시장에서 생활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홀로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곁에 담아 쓴 '할머니의 정원'(비룡소 펴냄)을 비롯해 '작아진 균둥이'(웅진씽크하우스 펴냄), '오늘은 혼술 생일 이예요'(중앙출판사 펴냄), '아무한테도 말하지마'(코리야스케이스 펴냄) 등과 청소년 소설 '구라장'(시공사 펴냄)을 냈다. 한편,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67)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손자들을 위한 동화쓰기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그가 쓸 동화는 어떤 내용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명작가의 아동문학 진출과 크로스 오버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들의 영예 확장이 아동문학이나 청소년문학을 하는 기존 작가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출판사 아동·청소년문학 관계자는 "유명작가의 장르 진출이 기존 문단을 자극하고 독려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문학 장르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예작가 발굴과 출판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韓-싱가포르 '현대미술의 만남'

## 10일부터 옥과미술관에서 특별교류전

한국과 싱가포르의 현대미술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싱가포르 현대미술 특별교류전 실행위원회(위원장 김종일)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곡성 옥과미술관에서 한국 작가(광주·전남 28명)와 싱가포르 작가 12명이 참여하는 '2010 한·싱 현대미술 특별교류전'을 개최한다. 광주·전남 작가와 싱가포르 작가가 이 지역에서 대규모 교류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류전에는 김수연·김인경·문경희·박자은·서경애·이규환·이매리·이인성·우미경·우재길·조성숙·정정남·황정연 등이 참여했다. 싱가포르에선 치우 슈웨이 폭, 황경, 자손 립, 주

스틴 리, 탕린 나, 타이 백 치양, 프랜시스 엔지, 추아 분 기, 노성숙 작가 등이다. '아시아 현대미술 공간 + 상상성'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교류전은 첨단산업화 사회에서 정신적인 빈곤을 치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양국 작가들의 교뇌와 열정, 노력의 메시지가 담긴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치우 슈웨이 폭 작 'Life is like play'



김종일 작 'Return to innocence'

김종일 실행위원장은 "이번 교류전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현대미술의 흐름을 작가와 작품을 통해 상호비교하고 남도 전통 문화예술의 멋을 느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61-363-727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아이들과 함께 하는 클래식

### 피아노로 듣는 동화 이야기 17일 광주문예회관

'두 대의 피아노로 듣는 동화,' 클래식 공연장에서 겪는 낭패 중의 하나는 어린이 관객이다.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접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대는 아이에게도, 다른 어른 관객에게도 고역이다. 지역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는 T&T 예술기획이 이번 여름에 준비한 '해설과 함께 피아노로 듣는 동화 이야기'는 아이들과 꼭 한번 가볼만한 음악회다.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피아노 듀오 '이랑'이 들려주는 이번 음악회는 어린이 관객 뿐 아니라 클래식을 어렵게 느끼는 청소년 관객에게도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 레퍼토리는 클래식 입문곡으로 자주 연주되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와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로 두 대의 피아노 앙상블로 편곡해 들려준다. '동물의 사육제'는 캥거루, 거북이, 백조, 당나귀, 수탉 등 여러 동물들의 특징을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묘사한 곡으로 인기가 높다.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모티브로 한 '피터와 늑대'는 피터, 할아버지, 사냥꾼, 늑대, 고양이 등 주인공들이 각각 특정한 악기와 주제에 의해 표현된 곡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피아노 듀오 '이랑'은 김정아(광주대 음악과 교수)씨와 이랑(광주대 겸임교수)씨가 함께 꾸민 팀으로 지난해 결성 후 올해 두번째 음악회를 마련했다. 전국인형극제 등에서 수상한 김소희(광주대 유아교육과 4년)씨가 동화구연을 곁들이는 재미있는 해설을 진행, 더욱 흥미로운 음악회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가족권(4인) 2만원. 문의 017-331-6834. /김미연기자 mekim@

## 넵킨 이용한 창작 미술 한눈에

### 양명숙 창작문화예술연합회장 '넵킨아트 일러스트' 펴내

양명숙 한국창작문화예술연합회장이 넵킨 아트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안내서 '넵킨아트 일러스트'(동원문화사 펴냄)를 펴냈다. 넵킨을 이용한 창작미술 공예에 '넵킨아트'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익히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 풀이나 나무, 금속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넵킨을 활용한 다양한 기법을 담은 작품 제작에 대한 이해를 도

1부에서는 넵킨아트 소개와 제작과정을 담았다. 넵킨 아트에 대한 소개에 이어 코트, 크랙, 에폭시 등 넵킨을 활용한 다양한 기법을 담은 작품 제작에 대한 이해를 도

었다. 2부에서는 넵킨아트 작품 세계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담았다. 화장지 케이스는 물론 화분, 구름 거울, 교차수 등 무궁무진한 넵킨아트의 세계를 보여준다. '갤러리'코너에는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 진정한 넵킨아트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해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흥겨운 춤곡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 목포시립합창단 9일 목포문예회관에서 연주회

'흥겨운 춤곡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목포시립합창단(단장 하수미·사진) 정기연주회 '한여름밤의 무도회'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목포문예회관에서 열린다. 남성합창으로 영화 '화양연화'

중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와 '푸니쿨라'를 들려주며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정덕기 곡 '와인과 매너' 등을 들려준다. 또 김동진 곡 '내 마음', 이수인 곡 '별', 한성훈 곡 '하늘빛 너의 향

기', 신귀복 곡 '얼굴' 등 아름다운 노래들이 어우러진 한국가곡도 선보인다. 합창단은 목포해양문화축제에 참여하며 9월 16일에는 '열린음악회-가을소나타'라는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1-274-9621.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체험 '여름夏, 놀자'

### 이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달 1일까지 매주 주말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여름을 맞아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홍보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체험프로그램 '여름夏, 놀자'는 10월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반팔 티셔츠 꾸미기, 한지 부채 만들기, 재활용 소품 만들기, 투명 우산 꾸미기 등 세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며, 지역대학 미술전공 대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여름夏, 놀자'에 참여하려면 아시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 영화사상 | 컬럼버스시네마 | 이남점

1관 아리와 미니모어(2D/3D)/방자전(184)	1관 슈렉 포에버(3D 2D/3D)
2관 뱀발의 꿈(2D)/필립 모리스(184)	2관 슈렉 포에버(2D/3D)
3관 포화속으로(124)	3관 나이트메이 (154)
4관 나이트메이 (154)	4관 나이트메이(154)/아리와 미니모어(2D/3D)
5관 슈렉 포에버(2D/3D)/파괴된 사나이(184)	5관 방자전(184)/필립 모리스(184)
6관 슈렉 포에버(3D 2D/3D)/스플라이스(184)	6관 뱀발의 꿈(2D/3D)/스플라이스(184)
7관 이블림스 (124)	7관 파괴된 사나이 (184)
8관 킬러 인사이드 미 (184)	8관 킬러 인사이드 미 (184)
9관 파괴된 사나이 (184)	9관 포화속으로 (124)
10관 이블림스 (124)	10관 이블림스 (124)

상영시간: 평일-1번 or 2번 → 0번  
☎ 1588 - 7941

영화사상 | 영화사상 |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최장 / www.joycbc.com  
3D디지탈 상영! 상무점, 이남점 동시개봉!!

### MEGABOX

1관 이블림스 (124)	최고급관
2관 이블림스 (124)/슈렉포에버(2D)	
3관 나이트메이 (154)	
4관 파괴된 사나이 (184)	
5관 슈렉 포에버(3D 2D/3D)	
6관 스플라이스 (184)/포화속으로 (124)	
7관 파괴된 사나이 (184)	
8관 킬러인사이드미 (184)	
9관 이블림스 (124)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장터뷰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음극 부가

구. 권덕역국사거리 ☎ 1544 - 0600

### CINUS

1관 이블림스 (124)	
2관 포화속으로 (124)	
3관 킬러인사이드미(184)/슈렉포에버(2D)	
4관 슈렉 포에버(3D 2D/3D)	
5관 나이트메이 (154)	
6관 이블림스 (124)/뱀발의 꿈 (2D)	
7관 파괴된 사나이 (184)	

책갈피있는 영화상영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